

문화축제로 지피는 '지역불심'

합천의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하동의 '2000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 경주의 흥남제, 전주의 종이문화축제...

최근 지역별로 다양한 불교문화 행사가 마련돼 불자들의 수행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에 대한 불교홍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이러한 불교 문화 행사는 주요 사찰을 중심으로 일정이 진행되며, 단순한 관람에서 한 발 나아가 직접 참여해 체험하는 것이 많아 자연스럽게 불교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포교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행사는 15일부터 5월11일까지 26일동안 88고속도로 해인사 인터체인지를 해인사 구간에서 열리는 '제1회 통일기원 팔만연등축제'.

세계적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소장하고 있는 해인사와 가야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행사 기간동안 팔만대장경 관람·타본 시연과 모

해인사 팔만연등제 판각시연·사찰음식 체험

쌍계사 야생차 세미나·범패·작법공연

전북불교회관 종이전시회·시민 사경대회

조경관 들고 사진촬영, 사찰음식 체험, 통일기원 촛불행진, 통일기원 대제 등 각종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행사기간중 88고속도로 해인사 인터체인지에서 해인사까지 왕복 40km 구간의 양쪽 도로변에는 팔 만개의 연등이 켜져 야간에는 장관 을 이룰 것으로 보여 새로운 관광 명물로 등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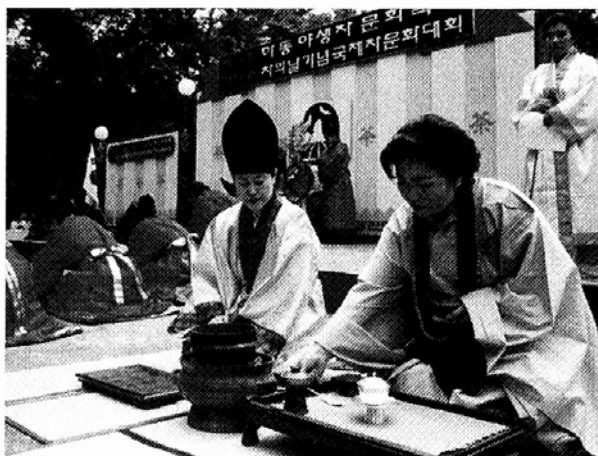
법패의 발상지인 하동 쌍계사 지역에서는 5월 19~23일 하동 야생 차 문화축제가 펼쳐져, 차 관련 재미있는 체험행사가 열린다.

5월22일 오전 쌍계사 팔영루에서 '야생차의 발전방향과 활성화 및 차의 맛과 멋' 주제의 학술발표회 가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오후6시 5월의 문화인물' 진감국사의 문화

업적을 추모하는 범패 및 작법공연 이 이어진다. 또 쌍계사 일원에서 열리는 차 사진 촬영대회, 쌍계 사·칠불사·정학동·진교도요지를 잇는 문화유적 답사는 불교문화를 만끽하는 즐거운 봄 나들이가 될 것이다.

통도사상보박물관이 11일부터 9 월 30일까지 개최하는 김룡사 폐불 당와 특별전은 불교미술과 불교의 식의 장엄함이 불자와 시민들에게 불 거리를 제공한다. 특히 11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폐불당 이운 및 영산재 재현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불가와 법악기 연주자 더욱 이채롭다.

또한 전북불교회관이 '2000 전 주 종이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5



월 3~5일 전주 경기전공원에서 시민·불자 대상의 사경대회 및 영산재 재현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는 찬불가와 법악기 연주자 더욱 이채롭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쌍계사를 국제적인 차 문화의 메카로 부각시킨 98년 국제차문화대회 중 성년 디렉식 장면.

종단소식

조계종

해인사 대장경 정대불사

법보종찰 해인총림(주지 보광)은 13일 오후4시부터 14일 오전10시까지 제40회 팔만대장경 수호 정대불사를 봉행한다. 정대불사는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화재나 액난으로부터 수호하려는 염원에 의해 시작된 불사로 경관을 정수리에 이고 의상조사의 법석간을 독송하며 법계도를 따라 행진하는 법석계요잡에서 절정을 이룬다. (0599)931-1001

금산사 가사불사 회향식

제17교구본사 금산사(주지 도영)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본말사 주지스님, 신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사불사 회향식 및 보살계 수계식을 봉행한다. 특히 이날 수계법회는 사적지에 기록된 전통을 되살려 방등계단 위에 세운 특설계단에서 봉행된다.

태고종

백령도 호국축룡사 위문

인천종무원(원장 대은스님) 산하 각 사찰 스님들과 교인, 신도 등 2백여명은 29일과 30일 양일간 백령도 내 해병축룡부대 군법당인 호국축룡사를 위문하고 부처님 오신날 봉축 점등식과 연등법회, 군장병 위문법회를 잇따라 봉행한다.

천대종

문수사 16일 법당 상량식

양양 문수사(주지 보광)는 16일 오전 10시 법당 상량식을 갖는다. 문수사는 5천여평의 대지위에 연건평 323평의 법당 및 요사채를 건립하고 있다. (0396)671-8889

창원 원흥사 이전법회

창원 원흥사(주지 유정)는 3일 경남 창원시 도계동 임시법당에서 이전법회를 봉행했다. 김중하 국회의원과 등 지역인사와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린 법회에서 주지 유정 스님은 "창원 불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사찰 건립불사가 마무리 되어가니 전 사부대중이 더욱더 마음을 모아 불사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원흥사는 연건평 1천300여평 지하 1층 지상 4층규모로 내년 10월 완공 될 예정이다.

관문사 유물전시관 개관

서울 관문사(주지 운덕)는 27일 오전 10시 유물전시관 개관식을 갖는다. 관문사 3층에 위치한 유물전시관은 탕화, 불상, 목어 등 성보문화재와 도자기 등 1백여점이 상설 전시된다. (02)3460-5300

진각종

'참회로 미래열자' 스승 강공

종교 회당대중사의 참종정신을 기리고 스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진기54년 춘기스승강공이 18~19일 성북구 흥인원에서 종단 산하 전 스승 및 종립학교 정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이번 스승강공의 주제는 '대 참회로써 미래 열자'.

정토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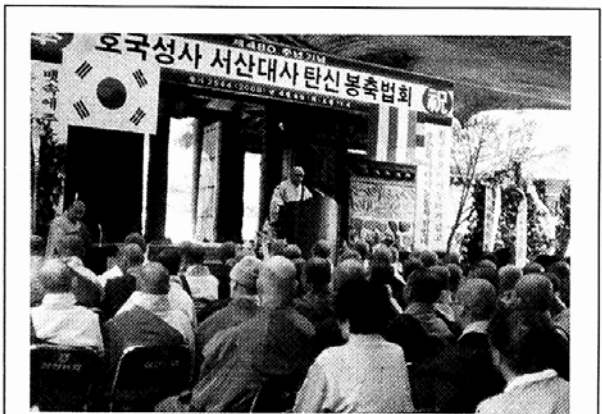
금암암 아미타불 점안

충남 연기군 금암암(주지 향림)은 9일 대법당에서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미타부처님 점안 법회를 봉행했다.

선각종

선각종 창종기념 법회

대한불교 선각종 창종기념법회가 2일 광주 능인회 녹야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창종원장 정암스님은 사 무총장에 역할담 주지 원보스님(사진)을, 비구니선원장에 자 명사 명지스님을 각각 임명했 다.



◇4일 대둔사에서 열린 서산대사 성역화사업 기공식.

대둔사 호국도량으로

서산대사 추모 보국대전·보국탑 등 신축

140억원 투입 2004년까지

해남 대둔사(주지 보선)는 탄신 480주년을 맞아 서산대사사 성역화 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4일 거행된 성역화사업 기공식을 기점으로 대둔사는 서산대사 탄신 480주년을 맞아 모두 140억원을 투입, 2004년까지 진 입부에서 경내까지 모든 도로 부대시설을 정비하고 해탈문 일주문 동국선원 등을 보수·복원한다. 또 선현의 영정을 봉안하는 보국대전과 문수전 보현전 보국탑을 신축하는 등 사찰의 역사적 위상을 재정 리하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을 고취하는 민족호국도량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입진왜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한 서산대사는 묘향산에서 입적하면서 자신의 의발을 두루산 대둔사에 보관할 것을 유언, 선조대왕이 교지를 내리고 보국사찰로 지정했다.

대둔사 내 표충사에서 열린 기공식에는 대둔사 조실 천운, 전 교육원장 안도, 전 백양사 주지 지선, 중앙종회 부의장 명진,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과 김병호 국회의위원장 등 정관계인사, 신도등 1천여명이 참석 했다.

해남=조운우 목포지사장

태고종 환경보호 수륙대제

남한강서...3천여명 발우공양 정신 실천 등 선언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6~7일 양일간 여주 신록사 앞 남한강변 특설도장에서 새천년 조국평화 기원 및 환경보존 실천을 위한 수륙영산 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총무원장 인곡스님, 부원장 보안, 지 암 스님 등 사부대중 3천여명이 동 참한 이번 법회는 1부 영산재와 2 부 방생법회로 진행됐다. 이날 참 석자들은 △지구환경보존 실천을 불자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공동생 존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검소한 삶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 △사찰주변의 정화와 자 연보호 활동을 실시해 환경보존 실



천을 생활화한다 △발우공양 정신을 생활화하여 음식쓰레기를 줄인다 △재활용과 아껴쓰기, 나눠쓰기 명체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등 5개항의 환경보존실천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경숙 기자 (gslee@buddhopia.com)

불교사회복지회 노인보호센터 개원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가 자체 건물을 마련하고 주간보호센터를 개원하는 등 지역복지의 새로운 요량으로 거듭나고 있다.

동북지회는 지난달 남구 이천동에 대지 134평의 조립식 폐널건물 1동을 신축(사진)하고 단독주택 2 동을 개조하여 시설을 완비한데 이어 7일 햇빛아르신 주간보호센터 (소장 일경)를 개원, 낮동안 노인 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 다.



실 휴게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심리·음악·미술치료, 선택조, 발 반사요법, 문화교실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이 운영된다. 생활보호대상 노인인 무료. (053)476-6631 대구=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또한 물리치료실과 일상동작훈련

경기도 사찰 관광상품화

연주암·흥국사 등 지정

경기도내에 있는 유명 사찰과 성지, 성전 등 종교시설이 관광자원으로 육성된다. 경기도가 관광상품화하는 대상은 사찰과 천주교·기독교 성지, 기념비 등으로 과천 연주암과 남양주 흥국사, 광주 천진암, 부천 소사천주교회, 안성 미리내성지, 화성 제암리교회와 두레교회 등이 선정대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광자원으로 선정되는 종교시설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재경 기자

제주 연꽃오름 창립 10돌

교도소 교화사업을 펼치던 제주 불교연꽃오름(회장 김진선)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15일 오후 2시부터 관음사 대웅전에서 제주발전기원 사경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는 남국선원장 혜국스님의 법문과 정근, 탑들이 등으로 진행된다.

김재경 기자

종인스님 자랑스런 충남인상

아산시 (사)육연청소년육성개발원 대표 종인스님(육연암 주지)이 3일 '자랑스런 충남인상(사회봉사 부문)'을 수상했다. 스님은 3여원의 사재를 들여 청소년육성발전원과 청소년무료공부방,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 청소년 인성교육에 힘써왔다. 김재경 기자

【 불교이해의 새 저서 】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반야심경의 핵심을 밝혀낸 역자!

(원문:프라즈나야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
한국 최초의 반야심경 원문 해설서!!!
한국 불교사에 기록될 기념비적 업적!!!

2,500여년 전 위대한 스승 고오탐타가 제시해 준 그 올바른 깨달음의 열쇠!

반야심경에는 중요한 핵심과 비밀이 있다. 그 핵심과 비밀을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밝히는 다섯개의 짧은 만트라(주문) "가테가테 파아라가테 파아상가테 보디 스바야하야" 그 핵심과 비밀을 이 책에서 만나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깨어날 수 있다. 자갈지 사장에서 장사를 하든, 바다에서 고기를 잡든, 농사일을 하든 유식, 무식,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그것과는 깨어나는 데 아무 관계가 없다. 누구나 마음만 먹고 행하면 가능한 일이 이 일이다.

인공지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시며 미국 휴스사에서 21년간 원로 과학자로 지낸 김사철 박사와 한국불교연구원의 황경환 연구위원이 함께 한 반야심경의 새로운 세계! 실험과 증명의 과학적 접근을 통해 누구나 깨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한국불교연구원
(02)3411-6167~8
/ 값 7,500원

깨달음의 열쇠

반야심경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